

# 리아호나



# 리아호나



**표지**

앞: 사진 촬영: 마티 마요;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어, 리하이와 그의 일행이 신세계에 도착함. 뒤: 그림: 델 파슨,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 배경 그림: 게리 이 스미스.



**친구들 표지**

잉그리드는 전통 의상을 입고 멕시코 민속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한다. "잉그리드 파비오라 마르티네스 바레도, 멕시코 투스트라 구티에레스", 2쪽 참조.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32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성"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4 "율법의 더 중한 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청년을 상호부조회로 영접함
- 30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32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족의 간증 켄트 피 잭슨
- 43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청소년란**

- 8 말일성도의 소리: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함
- 23 물문 메시지: 하지 마십시오!
- 24 고결성을 키움 태머라 리덤 베일리
- 26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제 친구도 돕고 동시에 제 부모님의 권고도 따를 수 있을까요?
- 40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콜린 위틀리
- 46 한번만 더 로저 테리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 사귀기: 잉그리드 파비오라 마르티네스 바레도, 멕시코, 투스트라 구티에레스 마빈 케이 가드너
- 5 심심풀이: 생명 나무 미로 로버트 제이 리스트럽
- 6 기억 카드 로미 바실라르 코테라
- 8 함께 나누는 시간: 신성한 약속 앤 재미슨
- 10 이야기: 마커스의 약속 엘마 제이 에이츠
- 14 물문경 이야기: 모든 예언자 버비안 폴슨
- 16 물문경을 읽으라



친구들, 6쪽 참조



14쪽 참조



2쪽 참조



30쪽 참조

# 리아호나 2000년 3월 호, 제3호

20983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맥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 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머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켈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톰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맨 캄펜

선임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데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제이슨 엘 엠

포드, 디나 엘 쇼웬슨

디지털 표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08호, 제 37권, 제 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장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파(☎2232-1441,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rch 2000 No.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리아호나가 가정 복음 교사를 도움

1998년 9월호 리아호나 표지 사진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리아호나 (스페인어판)를 손에 들고 나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무슨 그림 같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배수구를 고치고 있는 아빠 사진인 것 같은데." 나는 "더 자세히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이 가정 방문중인 가정 복음 교사라는 것과 도움이 필요했던 한 자매 집에 도움을 주기에 아주 알맞은 순간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리아호나가 내 남편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우리 워드의 장로 정원회 회장입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가정 복음 교사들의 새 임무 지명을 계획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가 방문 계획을 짜기 위해 그의 보좌들과 만나 상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리아호나는 그분이 우리가 할 일을 알려 주시는 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시아 아리아스 디 모리노

페루 리마 수르코 스테이크

비스타 알리그리 와드

## 메시지는 우리가 진리에 거하도록 도와줌

저는 아르헨티나 라파과주의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교회 회원이며,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잡지의 영감 어린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줍니다. 리아호나는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아나 디 비달

아르헨티나 산타 로사 스테이크

리알리코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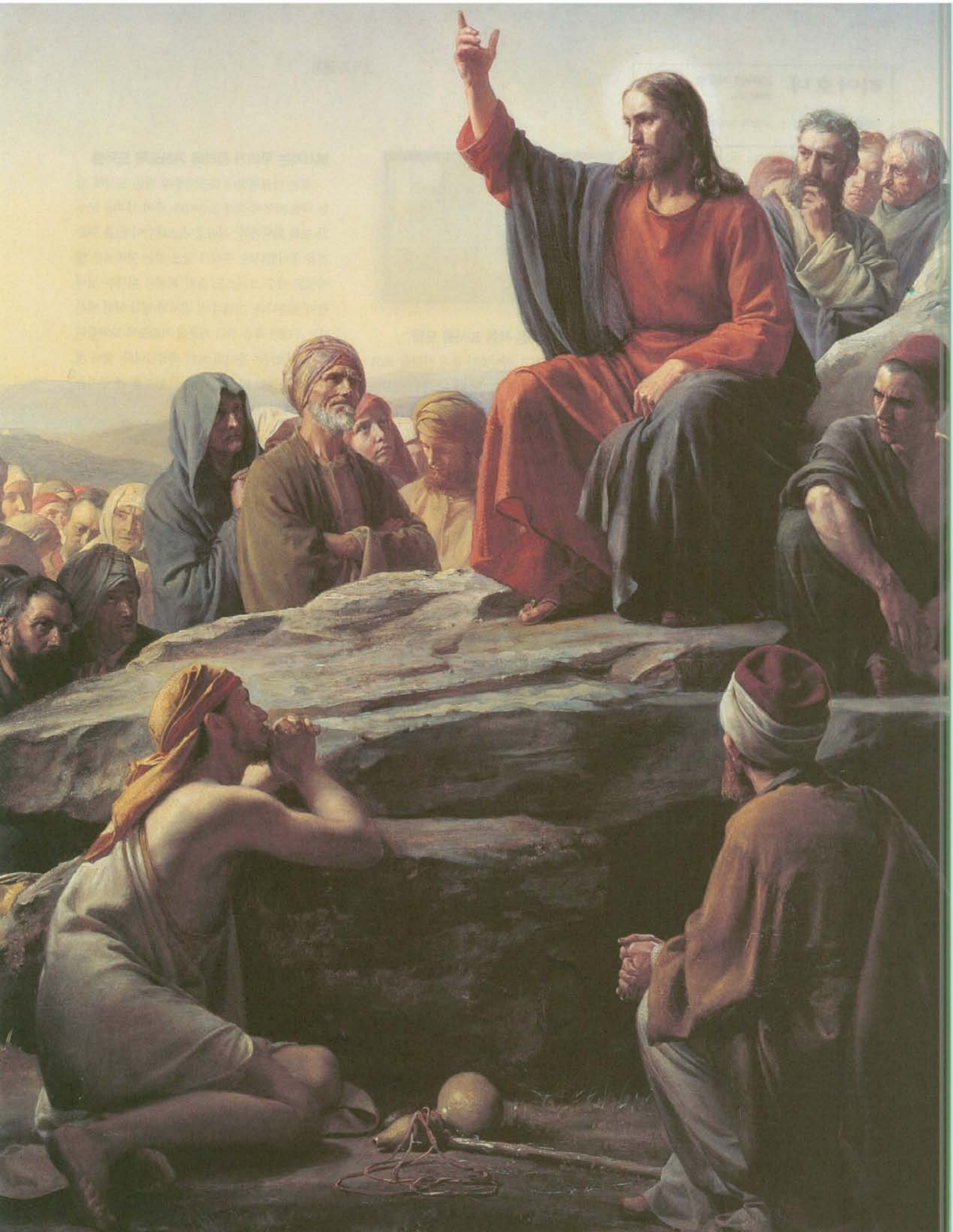
## 이 잡지는 힘과 기쁨을 줌

매달 저는 프랑스어 리아호나의 다음 호를 몹시 기다립니다. 1998년 12월호는 특히 영감적이었습니다. 이 잡지는 세계 필요한 힘을 줍니다. 저는 56세에 교회를 알게 되었고 개종 이후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많은 사랑을 느꼈으므로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줄리코펜에 있는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잡지를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몬 자플리키

스위스 제네바 스테이크

프리부르 지부



#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오** 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단지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단편적인 일에만 근거를 두고 후보자들의 공적과 대의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다른 모든 것을 도외시키고 복음의 한 가지 원리나 한 면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자였던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기 31:6) 우리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것이므로 공평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공평하게 판단 받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1~2: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7:1~2 참조)



우리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것이므로 공평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공평  
하게 판단 받을 것입니다. 구세주  
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 받는다고 느끼거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는 집을 해체하면 그들이 지붕 밑 한 장을 얻을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곧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정부나 법률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자유, 제약이 따르는 사회의 모든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탐닉합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1878~1969)이 말한 대로 그들은 “자신을 구속하는 습관과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과 자신을 파멸시키는 실추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재난에 굴복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의 균형이 다소 기울어져 있고 고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항의하는 데에 귀중한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구속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벌받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서는 시험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규칙을 깨뜨림으로써 자신이 더 강하고 독립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과 싸우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추구하는 일에서 독립성을 갖는 데에 많은 시간과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더 추구해 가다 보면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속박으로 가는 길임을 발견합니다.

재능과 표현의 은사와 귀중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 법칙과 규칙과 싸우는 일에 소모됩니다. 저는 청년들은 폭력단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서보다는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탁월해짐으로써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조금도 주저 없이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은 천박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학구적인 탁월함과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더 훌륭한 정체성을 갖고 더 훌륭하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는 자존심을 지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마태복음 11:7)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키려고 하거나 또는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순간들

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삶에 대한 우리의 훌륭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과벽스럽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미숙해 보이는 하찮은 일들과 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키호테처럼 “창을 들고 풍차”에 덤벼 든다면 우리는 신뢰성과 힘을 많이 잃게 될 것이며 균형 잡히지 않은 저울에 무게를 다는 모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각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탁월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모사이아서 3:19) 말김으로써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쉽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난 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더 많이 교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형제들에게 “성령(성신)을 대적하여 다투지 말”(엘마서 34:38)라고 권고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힘을 미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그렇습니다. “성신은 변치 않는 [여러분의] 동반자가”(교리와 성약 121:46)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신의 은사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심지어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 장로(1807~1857)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적인 기능을 활기 있게 해주며 타고난 모든 열정과 애정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며 확대시켜주고 정화시키며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그것은 유덕함과 친절함과 선함과 상냥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의 감정을 고무시켜 준다. 그것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외형과 용모를 향상시켜 주며… 모든 신체적인 기능과 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양시켜준다. 그것은 우리의 중추를 강화시켜 주고 고무시키며 활기 있게 해준다. 요컨대 그것은 뼈에 골수를, 마음에 기쁨을, 눈에 빛을, 귀에 음악을, 전신에 활기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용모가 빛나며” 그들의 모습은 “순수한 기쁨과 동정심의 따뜻한 빛”을 발산합니다.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1877), 101~102)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너무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더욱 아량을 키우



청남들은 폭력단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서보다는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탁월해짐으로써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며 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법조계에서 일할 때 우리가 항상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최소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가를 수는 없습니다. 구세주께서 그분의 십이사도에게 하신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16)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서 읽는 것 말고도 우리는 TV를 통해 온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곧바로 우리의 가정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기복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스

트레스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에 대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머입니다. 어떤 사려 깊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불운에 대해서 분명히 몸에 밴 유머감각보다 더 효과적인 방어 시설은 없다.” (Thomas Wentworth Storrow, *The New Dictionary of Thoughts*(1961), 283쪽에서 인용.)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 아이를 비롯하여 많은 갓난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유머 감각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것을 막아 주며 또 그들이 인생에서 균형을 이루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에 너무 끌려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유타의 한 법정에서 어떤 이혼 문제 때문에 재판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에 그 남편과 아내가 화해한 사실 때문에 한쪽편 변호사가 무척 분개했고, 증인석에 서서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쫓대



훌륭한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웃는 것을 배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신앙과 유머 두 가지를 모두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없고, 공정하지 못하며 지금 열리는 재판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몰아쳤습니다.

판사는 상대편 변호사를 향해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인석에 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모욕을 당한 이 현명하고 노련한 법정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증인석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 분은 저에 대한 모든 해 없는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법정은 웃음바다가 되었으며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적절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토마스 카알라일(1795~1881)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유머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모욕

이 아니며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폭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보다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Burton Stevenson 편, *The Home Book of Quotations*(1934), 938쪽에서 인용.) 또한 아브라함 링컨(1809~1865)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밤낮 엄청난 긴장을 느끼며 삽니다. 만일 내가 웃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The New Dictionary of Thoughts*, 283쪽에서 인용.)

훌륭한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알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들이닥치는 도전뿐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도전과 마주쳐서 그것을 극복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종종 염려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연히 주어지는 훌륭한 유머 감각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정체성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해 웃는 것을 배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웃는 것을 배우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감독이었던 시절에 우리는 와드 합창단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지휘자인 앤더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합창단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저는 앤더슨 형제와 다른 회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래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앤더슨 형제는 합창단원들이 독창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합창 연습을 하던 중 그는 제게 짧은 독창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합창단 앞에서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중에 합창단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던지 손에 든 악보가 떨어져 그것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품위 있는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통로를 걸어 내려올 때 저는 따뜻한 미소와 사려 깊고 격려에 찬 인사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독님, 감독님이 떠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기분이 편안해지던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감독은 보다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신앙과 유머 두 가지를 모두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히버 시 킴볼 부대관장(1801~1868)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듯"(아브라함서 3:11) 말씀드렸다고 전해줍니다. "언젠가 그분은 동료들을 위해 진지하게 간구할 때 한참 기도하던 중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경건한 태도로 말하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저를 웃게 만들었사옵나.'"(Orson F. Whitney, *The Life of Heber C. Kimball*(1992), 427쪽.) 그의 손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1895~1983)도 이러한 유머 감각을 물려받았습니다.

훌륭한 유머 감각과 열의를 지녔던 또 한 사람으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1886~1983)를 들 수 있습

니다. 어느 날 한 스테이크장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는 리차즈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 멈췄는데 리차즈 장로님은 한두 주 후에 그 스테이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리차즈 형제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그 훌륭한 사도는 "네, 좋습니다. 제가 사는 집인 이 육신은 좀 낡아서 빼겨거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95년의 삶을 입증하듯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그랜드 리차즈는 힘이 넘칩니다."

훌륭한 유머 감각은 우리의 재능을 연마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크게 발전시켜야 할 재능 중 한 가지는 타인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신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의 재능은 크게 발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균형은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그것에 적절한 안목을 가지며 변화되지 않을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태도가 균형을 이루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은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2.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모사이야서 3:19) 말기는 것이 더욱 쉬우며 그것은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3. 넓은 의미에서의 균형은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변화되지 않을 일들을 적절한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4. 우리가 유머 감각을 키우고 자신에 대해 웃는 것을 배운다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5. 균형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것은 의로운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함

**고**든 비헝클리 대판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위대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높은 터전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훌륭한 영향력을 미쳐 온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탁월함을 추구함”,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6쪽)



다음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탁월함을 보여 주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 돌리보고 발견함

크리스티 길즈에게 말한 바를 웨인 와이즈가 적음

**그**는 자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가족들과의 약속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가? 나는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면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타이완 타이베이 선교부의 선교사였으며 새로운 내 동반자 루 장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 손에 굵은 막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훌쩍훌쩍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을 꼭 잡은 성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루 장로가 소년이 맞지 않도록 그녀를 말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막대기를 버려 두고 떠났다.

마침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 동반자는 그 가족에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다음 성구를 읽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8~39)

나는 움찔했다. 그 토론을 여러 번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구를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안 늦었더라면 나도 그

어린 소년을 도와주었을 거야 하고 나는 자신을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았다.

이어서 희생과 봉사에 대한 훌륭한 토론을 한 후 우리는 다음 약속 날짜를 정하고 그 가족과 헤어졌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나는 다시금 내가 혼자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루 장로는 자기 자전거를 망가뜨린 술 취한 어떤 남자를 도와주고 있었다.

우리가 천천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복잡한 시장을 통과해 올 때 내 동반자는 다시 멈췄다. 나는 그가 울고 있는 꼬마 옆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꼬마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우리는 루 장로가 사람들에게서 그 소년의 부모를 찾아 주겠다는 확답을 얻은 후에야 그 자리를 떠났다.

묵묵히 그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왜 나는 울고 있는 꼬마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또 그 자





전거를 망가뜨린 남자는 왜 못 알아챘을까? 왜 그는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을 보았을까?

그러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은 것이다.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것 때문에 뒤쳐져 있었던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정말로 주변을 둘러보았더라면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 동반자보다 앞서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자전거를 몰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며 봉사할 준비를 했다.

그 이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속도를 늦추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때 내가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 학습 방법

애나 알바노

**내**가 겨우 다섯 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내 일학년 공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배울 수 있는 모든 순간에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나로 인해 무척 기뻐하시던 것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그

로 말미암아 나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도 항상 공부해 왔다.

여러 해가 지났을 때 나는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일도 하고 학업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부의 나폴리 센트로 지부에서 침례 받고 회원이 되었을 때 나의 기쁨은 극에 달했다. 내가 항상 찾고 있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물론경을 비롯하여 다른 경전들과 리아호나(이탈리아어 판)를 읽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 영감 받은 기록들을 더 많이 읽을수록 알고싶은 소망도 더욱 커졌다. 복음을 공부하면서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모른다! 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방문 교육을 즐겼으며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겼다.

그러나 영적인 학습에 마음이 쏠리면서 학교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어머니는 내 생활이 바뀐 것을 알아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 만하면 충분해! 이 물론들에게도 질렸어!"

어머니의 말씀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의 행동은 교회의 탓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탓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나쁜 모범을 보이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대학 공부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을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학습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침내 많은 기도 끝에 나는 응답을 얻었다.

이제는 내 책상 위에 두 무더기의 책들이 있다. 오른편에는 경전들과 대부분 최근에 발행된 리아호나들이 있고 왼편에는 다음 시험을 위한 책들이 있다. 매일 나는 경전 공부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 나는 공부 시간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에 리아호나의 기사 한 가지나 물론경 한 장을 읽는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유익

이 되는 확고한 시간표를 따르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되며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자신도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누가복음 2:52)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무르고 영적인 면과 세속적인 모든 활동에서 그분께 봉사할 길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나의 학습 방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받아들여짐

제니퍼 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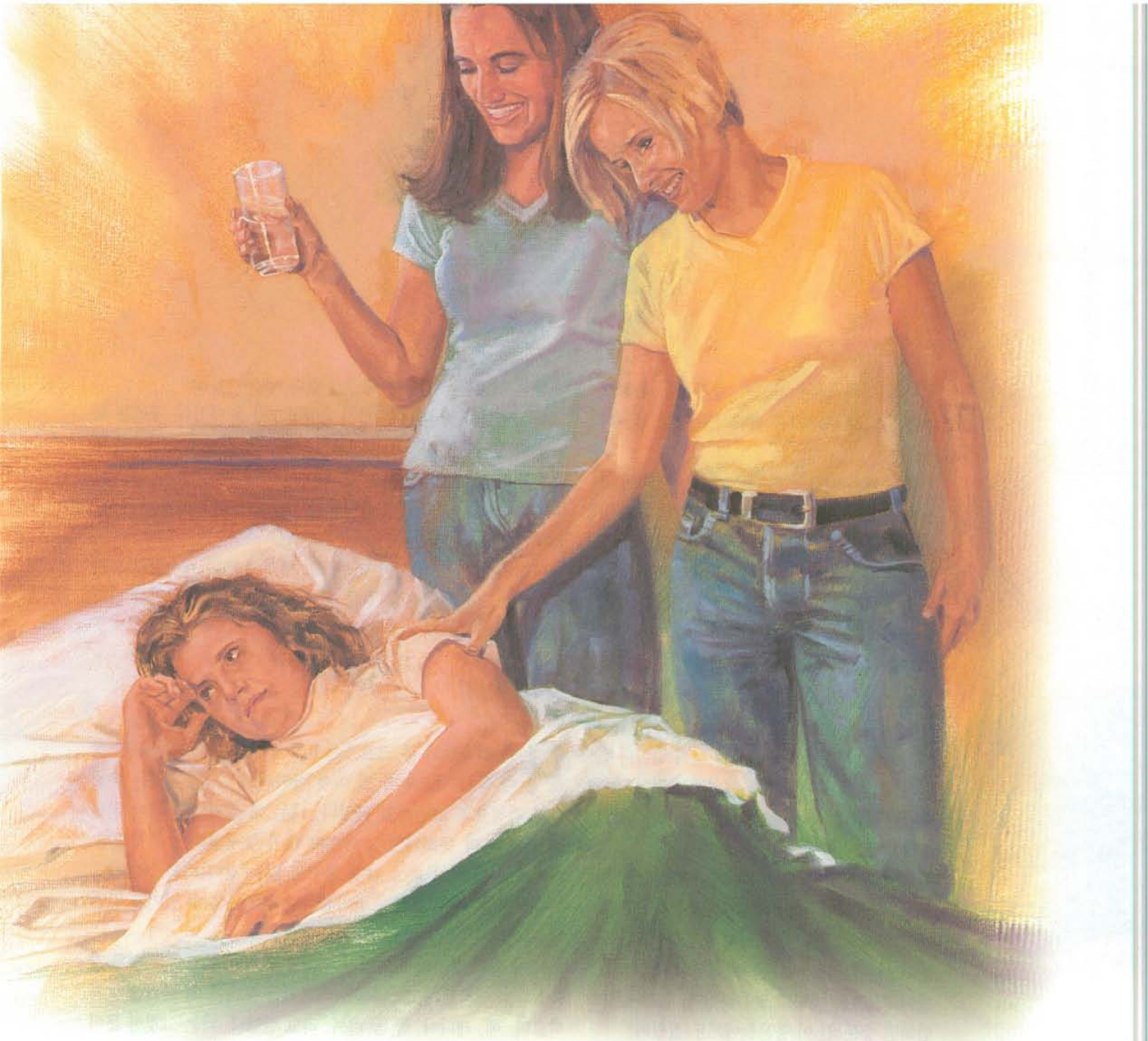
나는 다음날의 주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기다리며 모텔 방에 누워 있으면서 열 여섯 살짜리가 가질 수 있는 온갖 힘든 감정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내 달리기 성적이 지난 몇 년보다 더 못하다고 느꼈으며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데이트도 한 번 못하고 남자 친구도 없는 것이 나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나는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팀 동료들은 내가 잠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 애들은 키득키득 웃다가 내 어깨를 슬쩍 찌르며 "애, 제니야. 물 좀 마셔."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물이 아님을 냄새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나를 놀리려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재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 애들이 강제로 술을 먹일까봐 겁이 났다. 가족들의 울타리가 그리웠지만 내 나이 또래의 청소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유치한 것 같았다.

많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술을 마시면 그 애들 속에 깰 수 있을까? 술이 날 예쁘게 만들어 줄까? 그것이 남자 친구를 만들어 줄까? 내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 경기에서 우승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 그건 물이 아냐. 난 안 마실 거야." 다음날의 경주에서 그 소녀들 중 두 명이 나를 앞질렀지만 나는 주님이 지켜보시는



더 중요한 경기에서는 내가 이겼음을 알았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은 특별히 더 길게 느껴졌다. 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어머니께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내게 선물을 하나 주셨다. 내가 그 선물을 열어 보는 것을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이 지켜보았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지혜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의 결심을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재능이 있고 아름다우며 그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내가 학교에서나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 인생의 폭풍우에 대비함

아나 물러

**내**가 사는 북부 독일에는 어느 때보다 늦게까지 겨울 눈보라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특별한 날 아침에 라디오의 눈 예보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만일 날씨가 바뀌게 되면 그때 난 이미 집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혀 따뜻하게 차려입지 않은 채로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떠났다.

학교 수업이 끝났을 때엔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렸지만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할 길이 남아 있었다. 나는 라디오의 일기 예보를 무시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살을 에는 듯한 동풍이 내게로 불어대고 조그만 눈송이들이 무수한 편처럼 내 얼굴을 때렸다. 얼음처럼 싸늘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힘들고도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나는 옷을 바꿔 입고 안락한 내 방에서 눈보라를 지켜보았다. 그때 인생이 그 날의 내 경험에 비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시험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경고를 무시

하고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적인 준비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다. 준비를 통해 우리는 시험받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할 수 있다. 준비하는 것은 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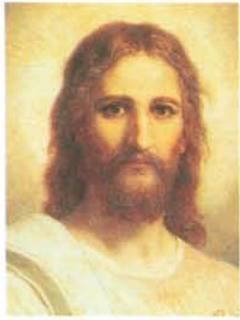
우리들 각자는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인생의 폭풍우에 대비해야 한다. □





# “유희법의 더





다양성과 선택은 율법의 더 중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더 중한 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 중한 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 세주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태복음 23:23)라고 말씀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다 덜 중요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간과할 수도 있는 “더 중한 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더 중한 바는 신앙이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과 같은 특성들로, 이것들은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힘차게 움직이게 해줄 것입니다.

더 중한 바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의 가장 높은 영원한 목표들을 이룬 것들, 곧 우리가 영원한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사용하는 세상적인 수단 또는 단기적인 목표들과 대비시켜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과 영원한 관점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린도후서 4:18)

세상적인 수단이나 목표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잃게 되고

또한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세상에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움직임으로써가 아니라,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만 영원의 길에서 우리의 위치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그대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여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너희가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교리와 성약 46: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탈 것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로마서 10:2)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심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열심, 곧 하나님께 열심인 것도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한 “지식을 좇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목표의 더 중한 바가 세상적인 수단—그 수단이 선한가에 관계없이—으로 대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가족

모든 말일성도들은 영원한 가족을 갖는 것이 영원한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영은 가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영화로운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는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멸의 가족과 연관된 모든 것이 영원한 목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과 관련된 많은 단기 목표들, 즉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 단합, 또는 사랑과 같은 것은 수단이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족이 단합하는 것은 분명히

유덕한 일이 아닙니다. 학대와 같은 일종의 악한 습관을 비밀로 하거나 지속하기 위해서 가족이 단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필멸의 가족의 목적은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며,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모든 식구들을 영원한 가족 관계 안에서 승영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계획에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들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하는 가족의 다스림, 수련, 단결, 그리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마태복음 22:37~38 참조)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보다도 우선되기가 쉽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태복음 10:37)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승영은 가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영화로운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는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선택, 또는 자유의지

더 중요한 것에 관한 이 메시지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릴 다음에는 선택 또는 자유의지의 역할입니다.

선택 또는 자유의지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개념만큼 우리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많은 개념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말일성도들이 이러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자유의지 곧 선택의 권리가 필멸의 생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은사가 없이는, 필멸의 생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세상에서 쓸 자유의지를 확보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커다란 분쟁을 겪었습니다. 전세에서의 이러한 분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 밖으로 내어쫓기고 또 필멸의 생에서 육신을 가질 기회를 거부당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요한계시록 12:7~9 참조)

자유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필멸의 지체를 받고 시험 당하는 것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수단 곧 우리가 자신의 영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악 대신에 선을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필멸의 세상에서는 선택이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필멸의 상태에서는 선택에 따르는 제한 사항이나 결과에 관하여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자유의지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하여 달갑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수단이기 때문에, 선택은 어떤 문제에서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내린 선택이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를 하나의 목표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려진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선택”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저는 임신 중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태아를 낙태시키는 여성의

선택권에 법률상의 어떤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젊은 시절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저는 낙태의 법률상의 결과에 관하여 꽤 오래된 논문 한 편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국적으로 논쟁이 확대되어 가고 또 미연방 대법정에서 소위 “낙태권”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관련 전문가로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법률상의 낙태권을 모색해 왔고 또 지금은 그것을 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논쟁거리를 얼마나 영리하게 낙태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사항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의학적 찬반의 토론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대신 선택에 관한 구호 내지는 논쟁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는지를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왔습니다. “임신 중절 합법화”라는 구호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개별 광고는 낙태를 정당화하고 또 낙태 반대 세력을 중화시키는 데 거의 마술적인 효과를 미쳐 왔습니다.

선택의 힘으로 묘사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의지가 복음 계획에서 기본적인 필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 의사 존중이라는 구호는 말일성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신학적 정의에 따르면 모든 말일성도들은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필요에 따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으로써 우리에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으며, 오직 의로운 선택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힘차게 움직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써 말일성도들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우리의 예언자들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6)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낙태 수술을 받거나, 시술하거나, 장려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선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율법의 더 중요한 바에 관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곧 영생을 향하여 우리를 움직여 줄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옹호해야 합니다. 임신 중절 합법화와 같은 구호와 언론 매



체를 통한 개별 광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려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목표의 가면이 벗겨져 결과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들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에 결국 자신들의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에 반대한다는 가르침이 확고하지만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예외 사항을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강간이나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매우 위험하다는 유능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또는 태아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어 출생을 해도 살 가치가 없다고 유능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낙태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감독과 상의하고 기도를 통해 성스러운 확신을 받은 후에만 낙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말일성도들은 자신이 낙태를 개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낙태를 관련된 모든 법적 상황에서 허용해야만 한다는 임신 중절 합법화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옹호하는 기초로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 세 가지 예외 사항이 지극히 희귀한 경우라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 의사에 따른 낙태를 주장하기 위해 예외 사항을 이용하는 이들이 가장 흔히 말하는 경우인 근친 상간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해마다 행해지는 수 백만 건 가운데 95 퍼센트 이상의 낙태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 임신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의 95 퍼센트 이상의 결과가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생명에 대한 경외감",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14~17쪽 참조) 선택의 결과를 변경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으로 "선택"이라는 주장을 사용하는 것은 구세주께서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자유 의사에 따른 낙태를 옹호하는 세속적, 철학적 주장에 대한 유력한 기초는 여성이 그 자신의 육신을 다스려야만 한다는 주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미국 밖에 사는 한 생각이 깊은 말일

성도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분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세속적인 표현으로 분석하셨습니다. 그분의 분석이 제가 종교적 배경에서 역설해 온 내용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에 의거한 설득에 잘 넘어가는 분들의 유익을 위해 그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자연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육신에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선택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육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여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면, 그녀는 그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태아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원치 않는 임신일지라도, 그것이 선택을 하는 자신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에 따라 낙태로 끝내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못합니다. 그 여성은 임신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신의 육신에 일어날 일을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행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녀의 양심은 낙태가 지극히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점을 그녀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태아는 인간 본연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유일한 합당한 이유는 자신의 육신에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선택하는 여성의 권리의 침해 또는 박탈 또는 그것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교육적, 재정적, 개인적인 고려만으로는 태아 내에 있는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욱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이러한 고려들은 태아의 존재를 자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아기를 입양하겠다는 결정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강간 또는 근친 상간은 자신의 육신에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선택하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임신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은 임신의 상태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무책임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여성은 낙태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뿐 아니라 도덕적 권리도 지니게 됩니다. 그녀는 그 책임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태아를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그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녀의 권리를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낙태를 거부할 권리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에게 태아에 대한

권리와 태아를 위한  
책임도 부여될 것입니다. 나  
중에 그녀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 아  
기를 입양하는 과정을 통해 아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선택인 것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써 주신 분은 똑같은 추론을 우리의 교리가 허  
락하는 다른 예외 사항 곧 산모의 생명과 출생 후에도 살 가망이  
없는 아기에 대해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선택에 관한 이 토론을 다른 두 가지 간략한 요점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는 낙태 반대자이지만 공공 정책면에서  
는 임신 중절 합법화 지지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심각한 죄라고 정의를 내린 문제에 있어서 의로운 선택을 권장하

는 공공 정책을 세우는 데 우리의 영  
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  
한 입장을 견지해 온 말일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다른  
어떤 비통한 죄가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거나, 사람들이 그들  
의 선택에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 과연 어떤 비통한 죄를  
법적인 죄라고 규정해야 하겠습니까? 아동 학대를 죄로 여  
거서는 안 되거나 그것의 법적인 결과를 경감시켜 주어  
야 하는 것입니까? 동물에 대한 잔학 행위는 어떻습  
니까?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다 큰 자  
유와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기로 선택  
한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도덕적 행  
위를 강요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함  
으로써 임신 중절 합법화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형법이 도덕적인 사항 이외

이 주제에 관한 우리의 예언자들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교리와 성약 59:6)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입법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어떤 선택을 우리의 정부가 처벌하지 않도록, 도덕적 기초 위에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죄에 반대하는 모든 법률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 다양성

수단과 목적, 수단과 목표를 혼동시키는 나쁜 영향으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설명은 다양성이라는 단어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단어보다도 생각을 혼란시키는 것이 없을 듯 싶습니다. 존경받는 한 연방 판사는 다양성을 찬양하는 새로운 신조가 '홀어지면 산다'라고 외치며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찰함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최근에 언급했습니다. (제이 토마스 그린, "재판을 받는 행동주의자 법철학", *Federal Rules Decision* 178(1997): 200쪽 참조) 종교적인 표현에서조차 우리는 때때로 다양성이 마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다양성을 기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민족적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할 때와 같이 하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전에서 하나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차이점이 설명되고 있는 곳에서 명백하여 지는데,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경전에서 수 없이 언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표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경전에서 배우는 목적은 사랑과 순종과 같은 이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상들은 우리를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21~22 참조) 현대의 계시는 "다양하게 되어라. 너희가 다양하게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고리와 성약 38:27)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 하나의 수단,

또는 단기적인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강조될 때는 "어떤 종류의 다양성입니까?", "어떤 상황 또는 상태에서의 다양성입니까?", 또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성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 또는 단기 목표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정책 토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다양성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명백히 보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성이 이웃 관계에서 우선적인 목표라면, 이것이 이웃에 도둑과 아동 성학대자, 도살장 그리고 물구덩이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양성은 장기적인 일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공공 정책 토론에서는 구호를 넘어서서 그 목표를 확인하고, 예측되는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다양성들이 합의된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회원들 가운데 있는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의 다양성을 칭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강화하는 데 그들의 노력을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목적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필요에 따라 때때로 일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더라도, 문화적 내지는 민족적, 국가적 기원에 따라 지역적인 와드와 지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본질이 어떠한 간에) 다수 집단의 회원들이 다른 소수 집단의 교회 회원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충분한 우정 증진과 교회에 참여하는 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몸"이라고 부른 성도들로 이루어진 사회, 곧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세우려 애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3 참조)

"하나가 되라"라는 구세주의 계명에 따라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께서 대

관장단 제 1보좌로 이 자리에 서서 신권 소유자들의 단합을 호소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가 개성을 버리고 틀로 찍어낸 로봇트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 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신앙의 큰 초석이 되는 것들에 대한 단합된 확신을 마음속에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이 사업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이 그 결과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단합된 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고든 비 힝클리 의 가르침(1997년), 672쪽)

하나됨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관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다양성이라는 것에 도전함으로써 관용이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

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존중해야 합니다.”(가르침, 661쪽)

그분께서는 다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 곧 우리가 앞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있는 교리와 철학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관용을 지니고 인내의 태도를 쌓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견해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중심과 예의를 지키면서도 견해차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가르침, 665쪽)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 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랄도 예배할 수 있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의 다양성을 칭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강화하는 데 그들의 노력을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신앙개조 제11조)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이러한 입장을 수호하는 사람들 편에 있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닌 실제의 다양성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아들과 딸들의 민족적 또는 국가적 기원이나 다른 차이점에 관계없이 그들의 정신적인 고양과 축복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명에는 더욱더 커다란 힘이 존재합니다."(가르침, 664쪽)

간략히 말씀드리, 우리는 성도들의 사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차이점에 대한 관용을 전파합니다. 관용은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일러주는 것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관용이 자신의 표준 또는 정치적 내지는 공공 정책의 선택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용은 다양성에 반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다양성을 검사에서 차단시키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강한 요구는 때때로 다수 의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소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통상 이러한 일이 다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대치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 함께 공유하는 공식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다양성"을 이룩하는 것을 추구하여, 어떤 이의 가치도 공식적, 부분 공식적 입장에 의해 반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포기의 결과는 가치관의 다양성이 아니라 가치관의 부재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에 브리감 영 대학교의 객원 교수였던 루이스 포먼 교수의 관찰에 잘 나타나 있다고 믿는데, 그분은 다양성이 "도덕적 상대주의의 완곡한 표현"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관점", *Daily Universe*, 1998년 10월 13일, 4쪽 참조)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결국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도덕적 부재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예가 수백 가지나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는 공립학교에서 특정 행동의 그릇됨을 가르치거나 애국심의 올바름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제안들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예는 공공 건물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표시를 없애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상가들이 대학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중지되었다는 점을 비난하는 시대에, 브리감 영 대학교가 사회의 현

조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는 합법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진은 가치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성과 선택은 율법의 더 중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더 중한 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협동 단결이 아닌 개인주의와 관용을 향하여 밀려드는 강력한 현대의 조류에 맞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대중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옳은 것으로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맹목적인 순종이나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를 영원한 목표로 데려다 줄 영감받은 원리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목표를 지지하고 그러한 원리들과 일치되는 가운데 개별적인 노력에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됨과 협동 단결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홀로 있는 개인으로서의 승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영원한 결혼 성약의 비이기적인 상태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양쪽 모두가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가 된 상태의 성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 증거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속죄를 통해 우리 죄에 대한 해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요한복음 14:15 참조)과 "하나가 되라"(교리와 성약 38:27)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영생...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을 향하여 움직이게 해주는 하나됨을 추구하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

1999년 2월 9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개최된 영적인 모임 말씀



물론 메시지

# 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짓말이나  
헐뜯는 말은 ... 민들레 씨앗처럼 ... 흩어진다.  
아름다운 꽃씨나 소문은 다시 원상태로 모을 수가 없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용서가 능는 기적*[1969년], 56쪽)  
출애굽기 20:16; 야고보서 4:11 참조.

# 고결성을 키움

태머러 리턴 베일리

**고**결성. 여러분은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러한 품성을 지닐 수 있음을 알 것입니다.

고결성을 지닌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과 일관된 행동을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고결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7~12 참조)

올바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고결성은 증가됩니다. 여기 고결성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직업이 있을 경우, 지불 받는 만큼의 시간 동안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지키십시오.
- 빌린 것은 갚으십시오. (모사이아서 4:28 참조)
-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겠다고 말한 것은 실천하십시오.
-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험담에 귀 기울이거나 전하지 마십시오.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거리나 숙제를 재촉 받기 전에 완수하십시오.

■ 속도 제한 및 좌석 벨트 매는 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존중하십시오.

■ 학교 공부에서 정직하십시오. 부정 행위는 결코 하지 마십시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십시오.

■ 여러분의 입장에서 유리한 실수가 일어났을 경우 (상점에서나 은행 등에서) 가능한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 진실하십시오. 조그만 선의의 거짓말이나 부분적으로 진실인 말을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어떤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을 믿게 할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 모사이아서 18장 8~10절을 읽으십시오. 성찬식 동안, 그리고 그 주 내내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맺었던 이 약속들을 지킬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

## 청녀를 상호부조회로 영접함

**예** 언자 요셉 스미스가 1842년 3월 18일,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당시에는 18명의 자매들이 있었다. 그 중 세 명은 십대였다. 예언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스미스는 자매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위로하고 가르치십시오.”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모임 기록, 1842년 3월 24일) 라고 권고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모사이야서 18:21) 말일성도 여성들을 우리의 울안으로 영접할 기회가 있다.

### 기꺼이 상호부조회로 옮겨 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청녀 조직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명의 청녀들과 만났다. 그들은 이야기 중에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전 상호부조회로 가는 것이 좀 두려워요. 청녀반의 공과는 제가 겪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상호부조회에서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 같아요. 저에 관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한 청녀가 말했다.

한 청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숙녀들이 조용하며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딱딱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과 어울리고 재미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상호부조회를 좋아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청녀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들이다. 우리 모두는 이 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친구이며, 그들은 존중받을 것이며, 참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

### 사랑스러운 자매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엘렌 스무트 회장은 우리들에게 상호부조회로 들어오는 청녀들과 접촉하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사랑스러운 자매애 가운데서 청녀들은 복음 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확고한 간증을 키우며, 생활의 일부를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1999년 봄, 상호부조회 일반 공개 모임에서 행한 말씀)

상호부조회 선언문은 상호부조회의 이상을 확인하며, 모든 자매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의 딸들이다.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자매애로 이루어진 전세계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단합하여 우리의 구세주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과 미덕과 비전과 사랑을 지닌 여성이며 다음과 같이 행한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키운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영적인 힘을 구한다.

결혼과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다.

모성애에서 고귀함을 찾고 여성의 역할에서 기쁨을 찾는다.

봉사와 선행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생을 사랑하고 배움을 좋아한다.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간다.

신권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지한다.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이해하고, 승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상호부조회는 우리 모두에게 발전과 만족과 우정과 영적인 깨우침을 주며, 평생에 걸친 자매애를 제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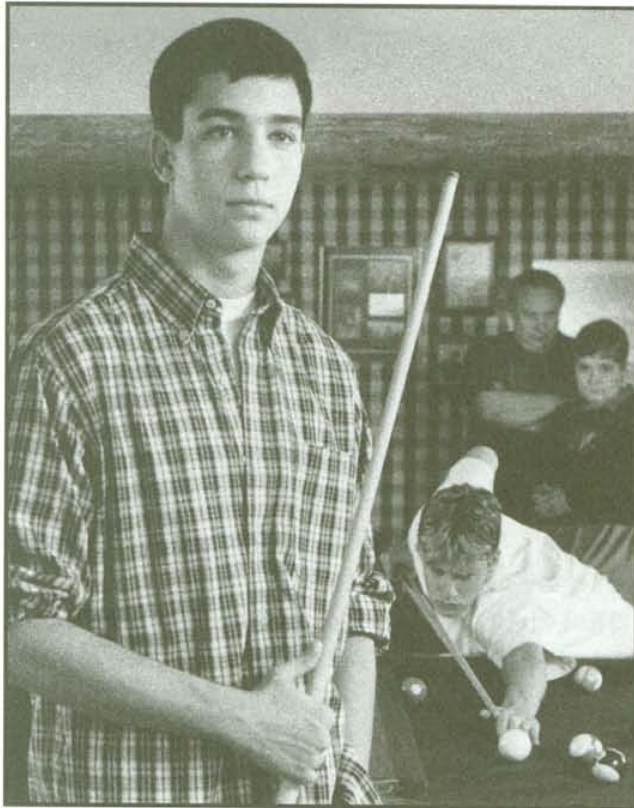


사진 촬영: 헬덴 시 앤더슨

질의 응답

##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제 친구도 돕고 동시에 제 부모님의 권고도 따를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술을 마시고 학교에 잘 가지 않는 친구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다른 훌륭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를 도와주고 동시에 부모님의 권고도 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 리아호나의 대답

우정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정은 교제와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매우 소중한 버팀목이 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친구들은 복음이나 가족 표준과 상반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서 양육하도록 명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93:40 참조)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가족의 가치관을 나누지 않는 친구를 택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과 우리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경험이란 장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표준을 타락시킨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세운 합당한 목표에서 벗어나도록 결코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복음 원리를 올바르게 고수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 있는 친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과 권고로 형제님은 친구가 자신의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형제님은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을 정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강한가? 나의 모범으로 친구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친구가 보이는 행동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친구는 의롭지 못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의 결정을 존중하겠는가? 아니면 자기처럼

불순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불순종한 친구를 도우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친구의 나쁜 행동에 동조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님이 복음의 표준을 올바르게 고수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형제님이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계명을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면 형제님은 그와의 우정을 끝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님이 친구에게 확고한 모범이 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친구를 도울 계획을 세우십시오. 친구에게 형제님의 표준을 설명하고 형제님의 믿음이 형제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형제님이 그를 걱정하고 돕고 싶어함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나 형제님은 자신의 표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임을 친구가 알게 하십시오. 형제님은 그를 교회나 청소년 활동에 초대할 수 있으며 선교사와 만나도록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형제님의 가정에 초대하여 복음대로 사는 데서 오는 행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개인 및 가족 기도를 할 때 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독자들 가운데 한 분이 제시하신 것처럼, 즉 형제님의 가족에게 친구를 위해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도록 부탁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형제님의 친구를 가장 잘 돕는 방법에 대해 함께 영감을 구할 때, 형제님의 부모님은 형제님의 힘을 인식하기가 쉬울 것이며, 형제님의 영적인 복지에 대한 그분들의 관심이 형제님의 친구에 대한 관심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면 그들은 복음 환경이 어떤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친구를 집으로 영접하려고 더욱 힘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님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올바르게 지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형제님이나 형제님의 가족은 친구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 독자의 대답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도록 복음에 헌신적인가? 만약 그 대답이 "예" 라면, 우리는 부모님이 안심하시도록 얘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다음

에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 활동에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가진 훌륭한 자질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그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제라르도 살바티에라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부  
칠레시도 지부

얼마 전에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직은 교회 회원이 아닌 제 친구는 술집에서 맥주 두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넌 우리 말일성도 원칙들을 모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함께 술 마실 친구가 없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 친구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맥주병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항상 저와 어울리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범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험베르토 마람비아 주니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캠프 그란데 스테이크  
빌라 노바 와드

친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여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이 확고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부모님 및 높은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함으로써 친구들이 영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게 도울 수



험베르토 마람비아 주니어



후안 카를로스 시비라



앤 메어리 파니크라



조지 레만 소르도



비비케 아카 완잡비



데비타 에프리카니



캠 비우티 오커



메리로 벨레라 밀레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시비라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오제다 스테이크

로스 로렐러스 와드

수개월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저를 괜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일시적이고 가공된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친구들의 지원과 많은 사랑으로 해서 저는 생각을 바로잡기 시작했으며 힘들고 고통스런 시기의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제 친구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앤 메어리 피니크라

노르웨이 스타방거 지방부

스타방거 지부

저는 제 친구를 가정의 밤에 초대할 것입니다. 친구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그를 교회 집회에도 초대하여 조금씩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친구를 돕는 방법에 대해 금식 기도해 줄 것을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일성도는 이웃을 돕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조르지 레먼 소르트

엘살바도르 아포파 스테이크

레피네리아 와드

저는 어떤 가치관은 존중하지 않는 무신론자인 가족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며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우드 도미놀트와 그 가족은 제가 실수를 할 때조차도 저에게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자신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족처럼 한데 묶여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끝내 그 친구가 형제님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형제님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알잡아 보며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시도한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 경우 형제님은 그 친구와 교제를 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여러분을 불순종으로 이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우드 뱌베 르나드

프랑스 보르도 스테이크의 교회 친구

저는 교회 회원과 함께 이 친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제가 복음에 강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제가 혼자 그 친구를 방문한다면 같은 실수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입니

# 심방 의사와 함께

2000년 3월호



다. 이 때문에 교회 회원인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방문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그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친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비비체 아카 완잠비

아이보리 코스트 아비잔 스테이크

폰시에르 와드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인식하는 사람들도 계속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행동을 개선하라는 우정어린 권고를 해줄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의 나쁜 행동이 그의 훌륭한 자질들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이 훌륭한 자질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제 부모님께 그 친구의 훌륭한 자질들을 알려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테비타 아프리카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방부

수라바야 바라트 지부

저는 어떤 식으로도 결코 저를 도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

구의 도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저를 암흑 속에 남아 있게 두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어린 양을 찾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캠 비우티 오커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우트 스테이크

에무오하 와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어떤 것에서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거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 관한 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린다 에이드 로페즈 피에로

에콰도르 과야킬 동 스테이크

누에바 오로라 와드

제 부모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파괴시키려는 친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권유하고 그의 행동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지적해 주어야 하며, 공부에 전념하도록 설득하고 그가 하고 싶은 훌륭한 일을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메리로우 벨레라 밀레르

필립핀 나바칸 스테이크

뱅거드 와드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0년 3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84150~3223, USA.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언어로 타자 치거나 깨끗하게 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와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꼭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이면 요청에 따라 이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대담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왜 그분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거룩한 성품

“우리 내부에는 거룩한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의 혈통이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억할 때 이는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며,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1998년 10월 14일, 버몬트주, 불링튼에서의 모임)

## 불친절

“우리가 경전 전체를 다 읽고 암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친절함이 있고 가족을 학대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998년 9월 19일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대회, 신권 역원회)

## 일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한 이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외바퀴 손수레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두 손으로 잡고 밀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고결성을 지니고 일하는 것을 배운다면 일은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축복할 것입니다.”(1998년 8월 6일,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선교사 모임)

##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교회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큰

사업체가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영적인 것이 결코 세상적인 것에 의해 압도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세상적이라함은 영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지니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 나의 계명은 영적인 까닭으로... 육체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육목적의 것이거나 정욕적인 것도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29:34~35)

“이 사업이 시작될 바로 그때로부터 세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진척시키기 위해 추구되어야 했습니다.”(1998년 11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 메리어트 경영 대학의 올해의 국제 경영인 시상식에서 행한 연설)

## 십일조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할 것과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 충실함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돈은 여러분들처럼 그런 훌륭하고 충실한 사람들의 헌신에서 옵니다. 십일조는 신앙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1998년 4월







25일, 오하이오 주, 컬럼버스, 모임)

### 미래에 대한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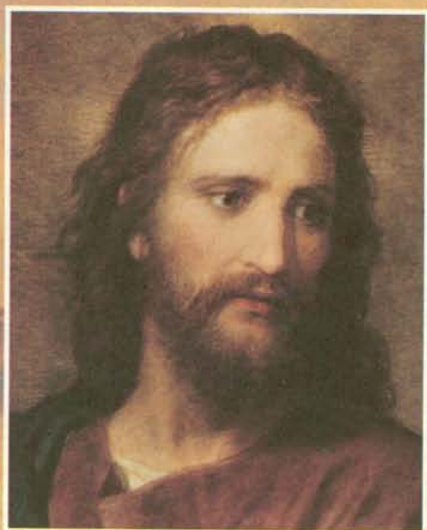
“저는 미래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문제 투성이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깡단이 날뛰고 가족은 사라지고, 어린이가 어린이를 죽이고 미혼모, 사생아, 마약 등이 판을 치는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많은 선한 부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가족을 진리와 의 안에서 양육하고, 정직과 고결성을 지닌 시민으로 살며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앙 깊고 충실하며 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1998년 9월 15일, 휴스턴 크로니컬과의 회견)

### 훌륭한 결정을 함

“여러분은 열고 닫는 거대한 농장 대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경첩을 본다면 그것의 움직임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경첩이 약간 움직이는 것만으로 대문에는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결정인 것입니다.”(1998년 10월 17일, 뉴욕 주 스케넥테디, 모임)

### 충실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복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업에 대한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훌륭한 모범이 되고, 좀 더 충실하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말일성도가 되길 촉구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충실하며 진실하게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1998년 11월 14일,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모임) □



리하이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에  
관해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다.



#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족의 간증

켄트 피 잭슨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신세계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일행  
삽입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관원

**우**리는 물론경에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지식을 앎으로써 축복 받은 한 이스라엘 가족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물론경과 성경을 피상적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리하이의 후손들은 그들이 떠나 왔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보다도 이 교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전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몇 줄의 귀중한 구절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복음이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음을 밝혀 준 요셉 스미스역에서조차, 우리는 모세의 시대에서 침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명확한 이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물론경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그 표제지는 그 책이, 다른 이유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현대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백성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권속에게도 그의 복음에 대한 충만한 이해력을 항상 주시지는 않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거역으로 인하여, 충실한 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대신권과 복음 축복이 모세에서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부되었다. (교리와 성약 84:23~27; 요셉 스미스역, 출애굽기 34:1~2 참조)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알아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듣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듣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조금도 알지 못하며” (엘마서 12:10~11)

거역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부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거역함으로써 많은 복음 교리가 거두어지게 하거나 보류되게 하는 고통을 겪었다. (엘마서 12:9; 29:8; 니파이삼서 26:9~10 참조)<sup>1</sup> 그러나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그들이 속했던 사회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말씀의 보다 위대한 부분이 주어졌다. (엘마서 12:10 참조) 주님께서는 리하이에게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물문경을 읽는 우리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배우고 기록한 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고 있다. 참으로, 물문경이 지닌 위대한 측면은 물문경에 실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확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있다.

### 니파이의 기록

니파이는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 큰 판을 만들면서 자신의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니파이는 큰 판에 자신의 부친의 기록, 곧 광야에서의 그들의 여행에 관한 기사와 그 자신 및 부친의 예언을 포함시켰다. (니파이일서 19:2 참조) 예루살렘을 떠난 지 약 30년에서 40년이 흐른 후에, 니파이는 작은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우리가 지금 니파이일서와 니파이이서에 가지고 있는 기록을 적었다. (니파이이서 5:28~34) 따



라서 리하이와 니파이의 초기 시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설명되어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지 적어도 30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기록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가 그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은 판에 기록을 할 때, 니파이는 자신의 기억과 부친이 작성한 기록, 자신이 일찍이 큰 판에 적었던

기사, 그리고 성신의 영감에 의지했다. 사실상, 시간의 경과로 니파이는 더욱 성숙하고, 식견을 갖게 되었으며 또 그 지나간 세월을 더 큰 시야로 볼 수 있게 되었다.<sup>2</sup>

### 리하이의 부름

니파이일서 1장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것이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구약전서의 예언자들이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곧 멸망될 것이며 또 그 주민들이 사악함 때문에 끌려갈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니파이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던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니파이일서 1:4 참조)<sup>3</sup>

그러나 리하이 또한 필멸의 세상에서의 구세주의 성역에 관해 배웠다. 그는 시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늘 한 가운데서” 내려오시는 “어떤 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의 뒤를 따르는 열 둘”을 보았다. (니파이일서 1:8~10)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으로 확인되었으나, 내려오는 “어떤 분”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이 누구인지 니파이의 기록의 그 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리하이에게는 한 권의 책이 주어져 그 책을 읽으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그 책에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이 멸망당하며 많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으며 사로잡혀 바빌론에 끌려가 속박”되리라는 내용을 읽었다. (니파이일서 1:13)<sup>4</sup>

니파이가 그 책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 않으나, 시현이 계속되고 또 부친께서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감에 따라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리하이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위대함을 선포하였는데 (니파이일서 1:14 참조), 이는 어쩌면 다가오는 멸망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의 구원 또는 죄에서 구원해 주

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이 시현을 통해 배운 메시지를 유대인에게 전할 때, 그는 두 가지 사항 곧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사악하다는 점과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리고 니파이의 표현에 따르면 리하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결하게 설명하여 세상을 구속하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니파이일서 1:19) 이러한 예언들 때

“[리하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줄기 불기둥이 나타나 그의 앞에 있는 바위에 머물렀으며 리하이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나니”  
(니파이일서 1:6)





문에, 리하이는 박해를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니  
파이일서 1:20 참조)

부친의 시현에 관한 니파이의 설명은 호  
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  
는 그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하늘 한 가운데서” 내려오시는  
“어떤 분”에 관해 언급했다. 니파이가 부  
친의 시현을 기록할 당시에도 비록 그리스도에 관하  
여 많은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기록했

리하이의 꿈에 덧붙여, 니파이의 시현은 미래에 대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

다. 그 기록은 “내러오시는” “어떤 분”이 누구 인지를 리하이가 시현을 본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받은 계시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야 리하이는 예수의 사명을 주제로 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니파이일서 10장 참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사명에 관해 배운 내용은 당시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사려깊고 또 섬세한 역사가였던 니파이는 기록을 상당히 훗날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가족들이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한 언어로 그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한 지식이 리하이와 그의 가족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일서 28:30) 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니파이일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점진적인 회복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고 있다. 여기서 리하이는 계시, 특별히 생명의 나무에 관한 시현을 통해 배웠던 몇 가지 개념을 그의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니파이일서 8장 참조) 니파이는 부친의 가르침을 풀어서 말하면서 세심하게 선택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리하이가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니파이는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육백 년 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메시아 곧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언자들” 세우실 것이라고 요약하였다.(니파이일서 10:4)

그 다음 구절에서 니파이는 “부친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곧 세상의 구세주”에 관하여 언급했다.(니파이일서 10:5)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가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 물몬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어 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쫓겨난 백성이요 타락한 백성이라. 이 구세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니파이일서 10:6)

“메시아”, “이 메시아”, “예언자”, “세상의 구세주”,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와 같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니파이는 기록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분명히 리하이와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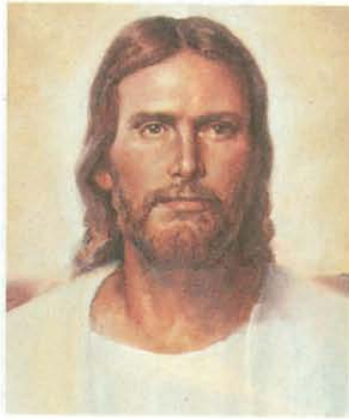
그 가족이 구세주의 이름을 배우기까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40년 이상이 흘렀다. 기원전 559년에서 54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리하이의 아들 야콥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천사는 구세주께서 그리스도라 불리게 되리라고 물몬경에서 처음으로 말했다.(니파이일서 10:3 참조) 그 이후로 자주 사용되어 그 이름은 영문판 물몬경에서 총 315번이나 사용되었다. 구세주께서 그리스도라 불리게 되리라는 것을 야콥이 배울 즈음, 니파이는 그분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실 것이라고 배웠다. 니파이는 “여러 선지자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되,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요”(니파이일서 25:19)라고 기록했다. 이곳에서 첫 번째로 지칭한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은 영문판 물몬경에서 161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니파이일서 10장에서, 니파이는 먼저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구세주의 초기 활동에 관한 부친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니파이일서 10:7~9 참조)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그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죽일 것이나, 그 후에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다.(니파이일서 10:11 참조) 니파이는 이 메시아가 “저들의 주”(니파이일서 10:14)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니파이일서 10:17 참조), 이 중요한 교리를 물몬경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다.

### 니파이의 간증

니파이는 부친이 과거에 보았던 것을 보기를 갈망했으며, 니파이일서 11장에서 생명의 나무와 유사한 시현이 그에게 열렸다. 리하이의 꿈에 덧붙여, 니파이의 시현은 미래에 대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

니파이의 시현은 예수께서 필멸의 몸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오심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미대륙의 리하이의 후손들에게 오심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그의 부친에게 알려졌던 내용에 덧붙여,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니파이일서 11:13~21 참조)



그분께서는 “영광과 권능으로” 가르쳐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하실 것이다.(니파이일서 11:24, 28, 31 참조) 그분을 “열두 사람”이 따를 것이다.(니파이일서 11:29 참조) 그분께서는 “세상의 심판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니파이일서 11:32~33 참조) 그분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시기에 앞서 파괴가 있을 것이다.(니파이일서 12:4~5 참조)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며(니파이일서 12:6 참조), 또한 그분께서는 니파이인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것이다.(니파이일서 12:7~10 참조) 그분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셋 내지 네 세대가 의롭게 지나갈 것이다.(니파이일서 12:11~12 참조)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한 교리에 대한 니파이의 이해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가르치기 위해 선택한 표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양”(니파이일서 10:10)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라는 용어는 구세주의 속죄 희생을 리하이의 가족에게 익숙해져 있던 모세의 율법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대신하는 속죄 희생물로서 그들의 죄를 지고 가실 것이다. 니파이일서 10장 10절과 14장 27절 사이에서, 니파이는 예수를 지칭하기 위하여 양이라는 용어를 57번이나 사용했다.

### 예언자들의 간증

예수의 사명에 관하여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단지 개인적인 계시와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얻은 것만은 아니었다. 낫쇠판에 기록된 과거의 예언자들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지노크는 주께서 “높이 들리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니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이라고 앞서 말했다.(니파이일서 19:10 참조)

예언자 지노스의 기록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니파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주요 근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니파이는 지노스의 기록으로부터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실 것이며 “사흘 동안의 어둠이 바다의 섬들의 백성들과 특히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주의 죽으심의 표적으로 알려지리라”(니파이일서 19:10)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노스는

나아가 주께서 “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오시”어, 의로운 자에게는 그의 음성으로 방문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보응을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니파이일서 19:11~12 참조)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만백성들에게 매질당”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말일에야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니파이일서 19:13~16 참조)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이 “주 저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니파이일서 19:23) 이사야의 기록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으며,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기록에 다시 포함시켰다.

### 물몬경의 간증

리하이와 그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수 백만의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리하이와 그의 아들들이 부름을 받은 후, 초기 시절 동안에 구세주에 관하여 배운 내용으로 인해 그들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다. 그들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다.

말일의 주님의 사업의 초기 시절에, 그분께서는 세상에 순수한 간증과 그리스도의 교리가 담긴 한 권의 책을 주었다.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물몬경을 주었으며, 그 책은 그분에 관해 증거하고 있으며 또 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sup>6</sup> 물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기 때문에, 리하이와 그

리하이의 아들 야곰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천사는 물몬경에서 구세주께서 그리스도라 불리게 되리라고 처음으로 말했다.



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열어 나타내어 보였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에 담긴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주

1. 교리와 성약 84편 23~27절은 멜기세덱 신권이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져 갔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반면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그 신권을 지니고 있었다고 가르쳤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집 [1976년], 176~177쪽) 따라서 예언자들이 비록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았으나, 그들 또한 복음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물문경의 근원과 내용에 대해서는, 엘딘 릭스의 물문경의 관들의 형성 이야기(1966년), 1~7쪽 참조: 에스 켄드 브라운의 예루살렘에서 제이라헤물라까지: 물문경의 문학과 역사적 연구(1988년), 28~54쪽 또한 참조.

3. 다음의 예언자들이 대체적으로 리하이와 동시대에 살았다: 홀다 (열왕기하 22:14~20 참조), 예레미아,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바냐.

4. 이 예언은 리하이의 세대에 일어났던 다른 예언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기록이다. 열왕기하 22장 15~17절에 있는 홀다, 예레미아 5장 1~10절의 예레미아, 하박국 1장 1~10절의 하박국, 스바냐 1장 1~18절의 스바냐와 비교한다.

5. 지노스의 공헌에 대해서는, 브르스 알 맥콩키, "교리 회복", 요셉 스미스 역: 간결하고 진귀한 것의 회복, 몬트 에스 나이만과 로버트 엘 밀레트 편집, 1985, 17~18쪽; 브르스 알 맥콩키의 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1985년), 558~559, 563쪽 참조.

6. 물문경은 1830년 3월 26일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매되었으며, 교회는 11일 후인 4월 6일에 조직되었다.





#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콜린 위틀리

**존**은 언제나 동생 베키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베키는 오빠를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삶이야!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존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했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라워 했습니다.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존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존으로 말하자면 감수성이 뛰어나고 생각도 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존은 돈을 모아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조그만 조각 상을 사드리기도 했고 아버지를 위해 차고를 청소하기도 했으며,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도 늘 변함없이 잘 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두 살 아래인 베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베키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존은 베키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야구 모자를 씌워 주기도 했으며, 동생이 귀여운 남자 친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베키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존은 동생에게 사물함을 여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존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마리화나를 손대면서부터였습니다. 얼마 안가서 여러 가지 마약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도와 감동님의 점견, 또 전문치료사들과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존은 계속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한편 생활도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너한테 피해가는 게 없잖아. 난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나하고 노는 여자애들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아. 더욱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그래도 가족들은 모두 존을 사랑했으며 그를 도울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특히 베키가 존을 친하게 대했으며, 존도 베키를 가깝게 대했습니다. 베키가 할과 결혼했을 때, 존은 스스로 없이 새 매제를 끌어안았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생인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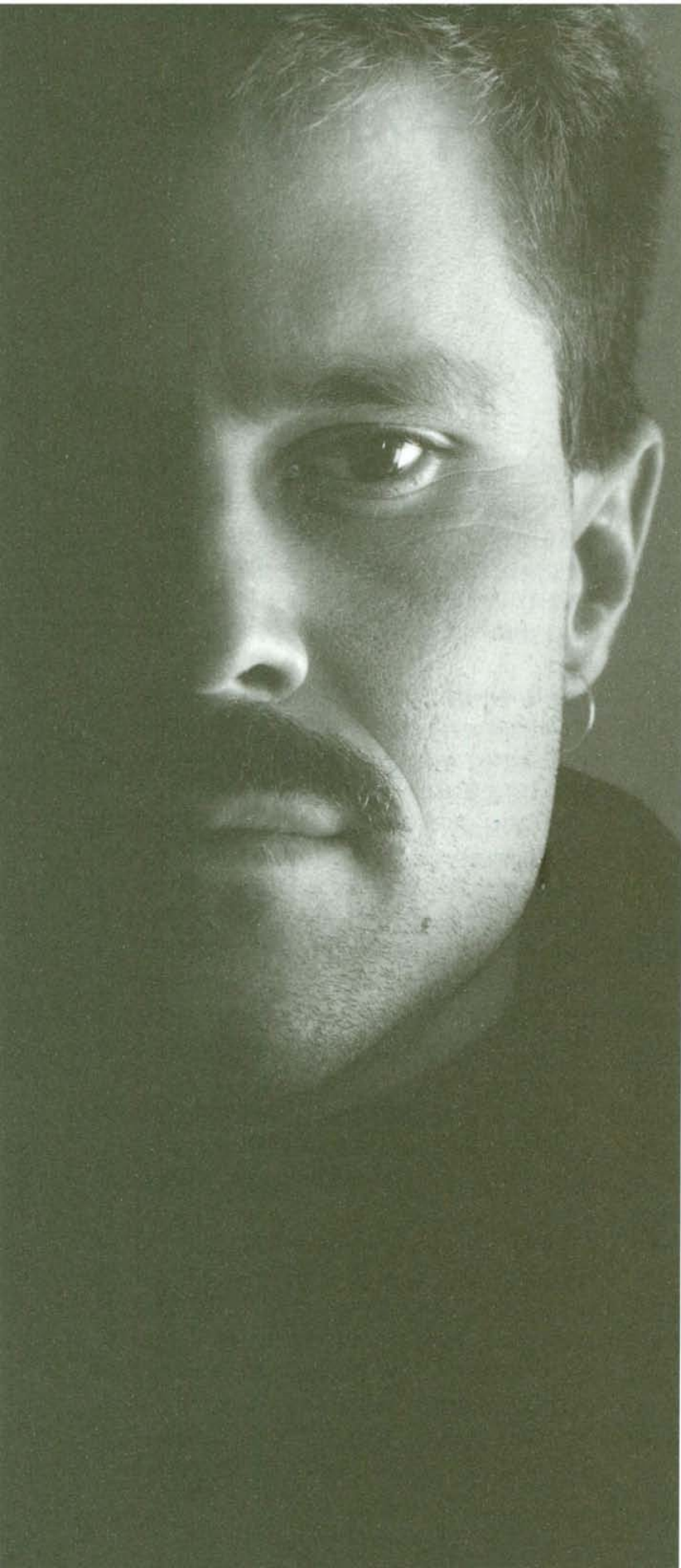
베키 부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나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도 존은 빗속을 뚫고 그곳까지 차를 몰고 가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키가 임신 중일 때에는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조카들이 태어나서도 늘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조카들에게는 전혀 낯선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존은 가끔 불쑥 나타나 야채와 저녁 식사용 음식을 담은 가방을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키에게 갑자기 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여름철에 베키가 심하게 앓게 되었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이유는 독감이나 폐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암 때문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이 너무나 급속한 속도로 퍼져 나가는 바람에, 의사들은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집중적인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를 죽일 정도로 강한 방사선이라면 혈액 속의 건강한 세포까지도 함께 죽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통해 건강한 세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증자가 환자와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대개 형제나 자매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키에게서 이런 사정을 들은 베키의 남매들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유전자 일치 여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대기실에 모여 앉아 있는데 의사가 서류철 하나와 가족들을 검사한 내용인 듯한 청색 카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할이 묻자, 의사는 “어쩌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는 존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존이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잠시 같이 갈 데가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그만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나왔는데, 존은 긴 의자의 끝부분에 무척 낙담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의사는 가족 가운데 베키와 가장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사람은 존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너무나 훌륭하게 맞았지만 존은 최소한 6



개월은 골수 기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이 감염되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권력적인 성 생활과 정맥 주사용 마약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일 감염되었다면, 그 감염원을 여동생에게 그대로 전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생성되는 항체만이 감염되었을 수 있으며 진행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다른 적절한 사람을 계속 찾아볼 것이라고 의사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6개월이나 기다릴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몇 주 내에 암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람에 집중적인 방사선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베키는 호흡 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때문에 베키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베키가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실 때 이미 오빠의 생활하는 모습으로 봐서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미 오빠를 용서했는 걸요."

합은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같이 놀아 주지 못할 거라고 애써 설명하려 했습니다. 베키의 부모는 슬픔에 차 있는 딸아이의 가족들을 보살피 주었습니다.

그러면 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생활은 여러 면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중독 증상과 행동 양식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어서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존에게서 더 이상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이 달의 영웅

루스 앤 코스비

연초에 매달의 가족 주제로서 우리는 "각 달에 대한 12영웅"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족 구성원에게 이들 영웅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의 밤을 준비하도록 지명한다. 매달마다 우리는 성구를 외우고 그 달의 영웅과 그 "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해주는 공과와 게임과 활동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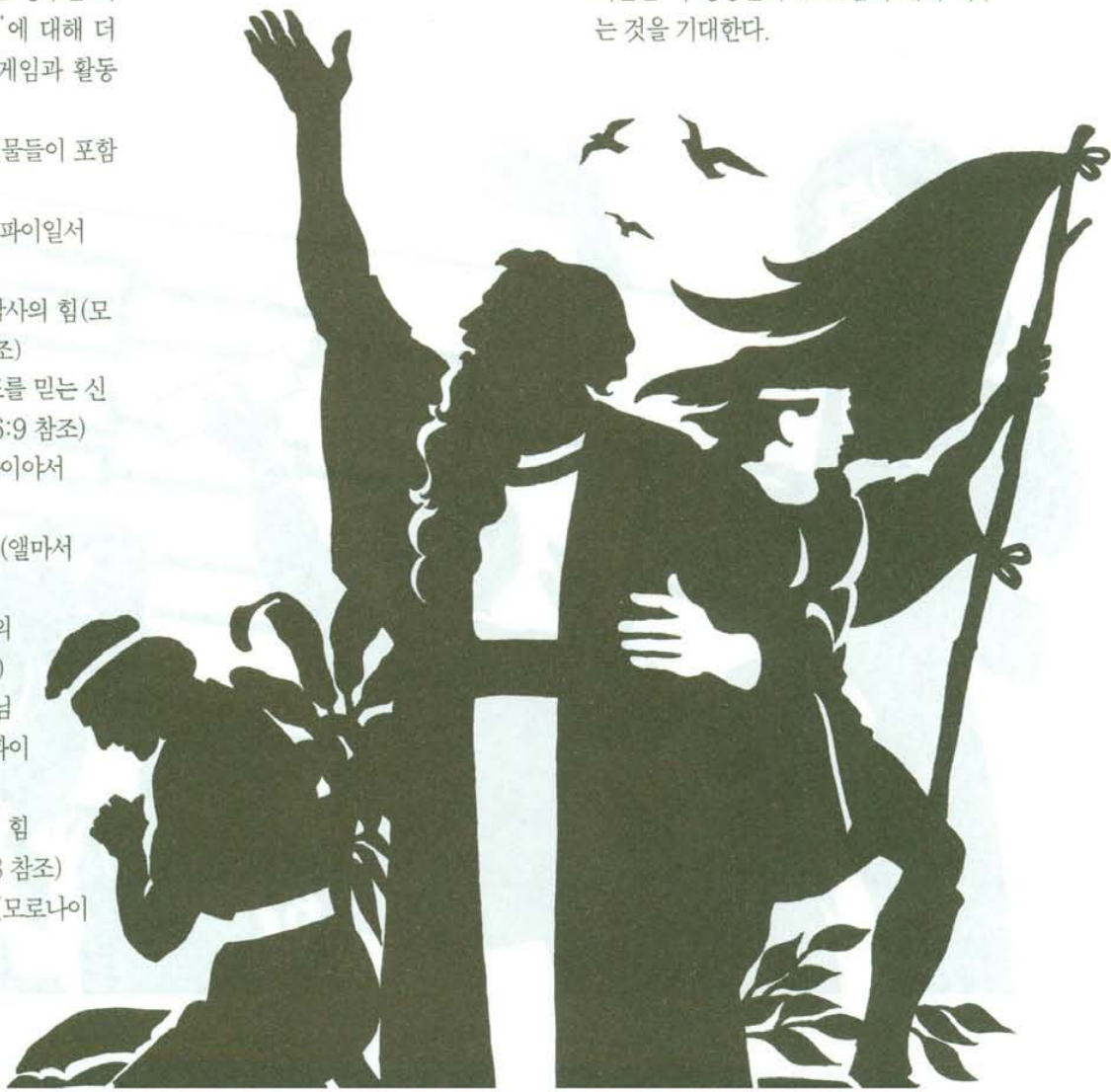
우리의 영웅에는 다음의 인물들이 포함된다.

- ◆ 니파이와 순종의 힘(니파이일서 3:7참조)
- ◆ 베냐민 왕과 봉사 및 감사의 힘(모사이야서 2:17, 19 참조)
- ◆ 아비아다리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모사이야서 16:9 참조)
- ◆ 엘마와 침례의 힘(모사이야서 18:8~10 참조)
- ◆ 암몬과 선교 사업의 힘(엘마서 26:22 참조)
- ◆ 모로나이 장군과 모범의 힘(엘마서 48:17 참조)
- ◆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니파이삼서 27:13~15 참조)
- ◆ 몰몬과 소망 및 사랑의 힘(모로나이서 7:41~48 참조)
- ◆ 모로나이와 간증의 힘(모로나이서 10:4~5 참조)

우리는 각 달을 네 개의 다른 제목으로 나눈다. 그러나 각자가 원한다면 자신의 제목을 선택하도록 허락해 준다. 우리가 니파이에게 초점을 맞춘 달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1) 니파이가 예언자를 따름, (2) 니파이가 여행을

계속함, (3) 니파이가 구원의 계획을 배움, (4) 니파이가 성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 우리는 또한 그 달에 대한 찬송가나 초등학교 노래를 선택한다.

그 달의 영웅에 관한 가정의 밤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영웅들과 그 모범에 대해 배우는 것을 기대한다.





### 조상 게임

도린 맥대니얼

여러 해 전에 나는 가족 역사에 초점을 맞춘 가정의 밤을 계획하고 싶었다. 당시 9세부터 13세에 걸쳐 있던 우리 아이들은 조상 중 몇 분만 어렵듯이 알고 있는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조상들을 더욱 잘 아는 데 도움이 될 게임을 생각해 냈다.

나는 커다란 종이에 6세대 가계도표를 준비했다. 아이들의 이름만 채우고 나머지

칸은 빈 상태로 두었다.(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도표에 대한 해답 도표를 별도로 만들었다.)

도표의 빈칸들을 위해 나는 해당되는 조상의 이름이 들어 있고 그 분들에 관한 몇 가지 설명이 적힌 별도의 카드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한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라 월터 가드너, 나는 부모님이 평원을 횡단하던 때인 1849년에 와이오밍 주의 스윗워터에서 태어났다."

나는 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규칙을 말해 주었다. 각 사람은 카드 위에 적힌 설명을 이용하여 도표의 어느 부분에 자기 카드를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게 조상들에 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예'라는 대답이 나오는 한 그들은 계속 질문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카드를 잘못된 자리에 놓거나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간다. 아이들은 이내 그 게임을 이해했고 곧 그 도표는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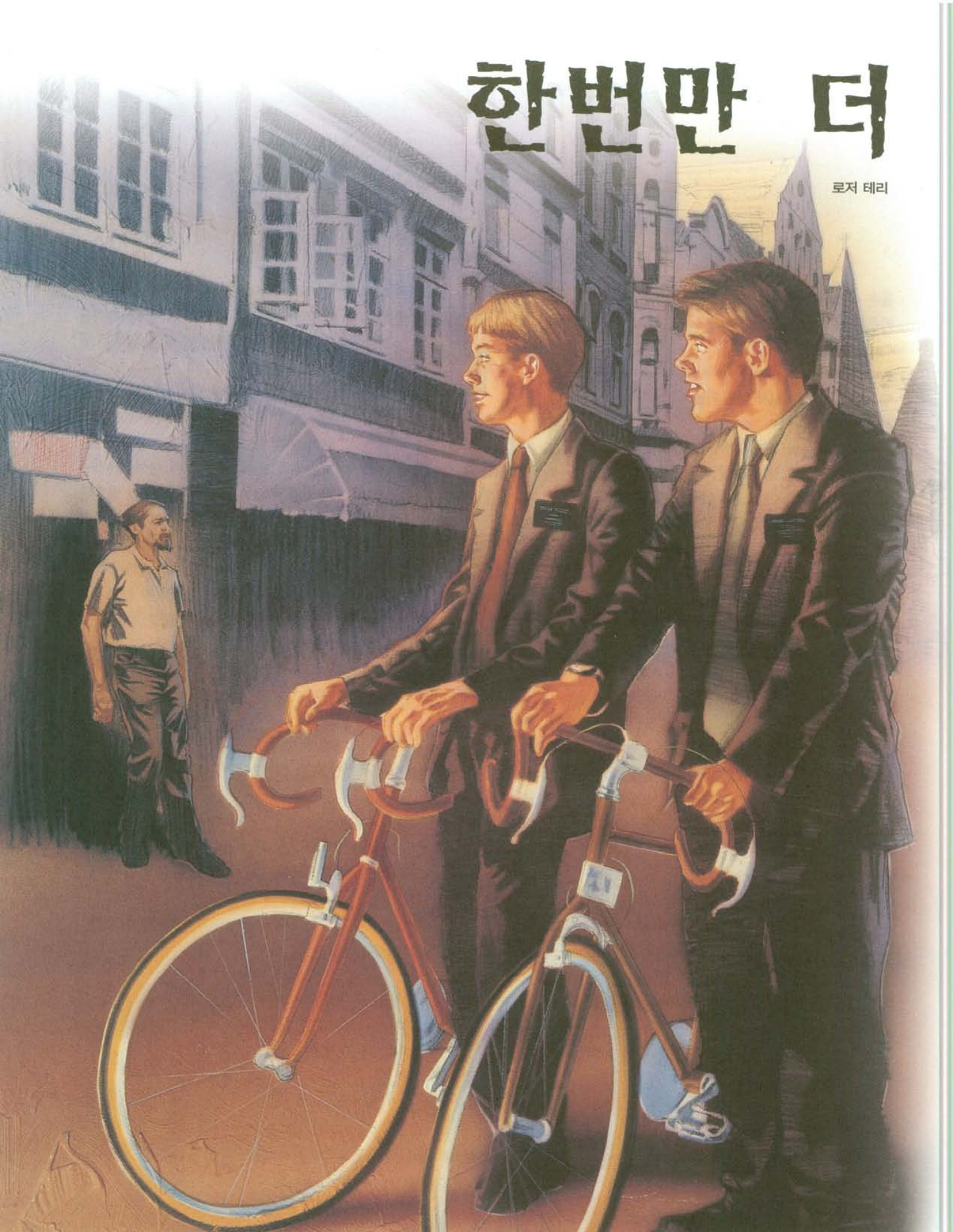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그 게임을 즐겼으며 아이





# 한번만 더

로저 테리





**독** 일 루나베르크에서의 유난히 무더운 어느 날, 케빈 페퍼 장로와 저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을 마치고 나니 저녁 9시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자면 아직 30분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가가호호를 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루나베르크 중심가의 쇼핑 구역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미 세 시간 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고 낮 동안에 분주히 다니던 그 많은 인파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만이 한가로이 진열대를 구경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가끔씩 멈추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고 싶지 않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힘든 선교 사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침례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 다. 가가호호도 많이 하고 길전도도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정직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종교를 바꾸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렇게 해서 그 거리의 끝까지 갔을 때의 시각이 9시 25분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컴컴한 어둠 속에 누군가가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머리에다가 턱수염도 약간은 제멋대로 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페퍼 장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었고 그날 구도자를 한 명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저 사람도 오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가죠."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불쑥 한 마디가 나왔습니 다. "저분에게 가 보죠."

우리는 그 남자에게 가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배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 주가 지나갈 무렵 길에서 만났던 알프레드 클리카라는 그 남자의 집을 찾아 갔는데,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수줍음을 타고 더 신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슴도 더 열어 놓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에게 읽고 있다는 책을 보여 주었습니다. 동양의 종교에서 사용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해 가르쳤으며 우리의 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받아 든 뒤 그 책을 읽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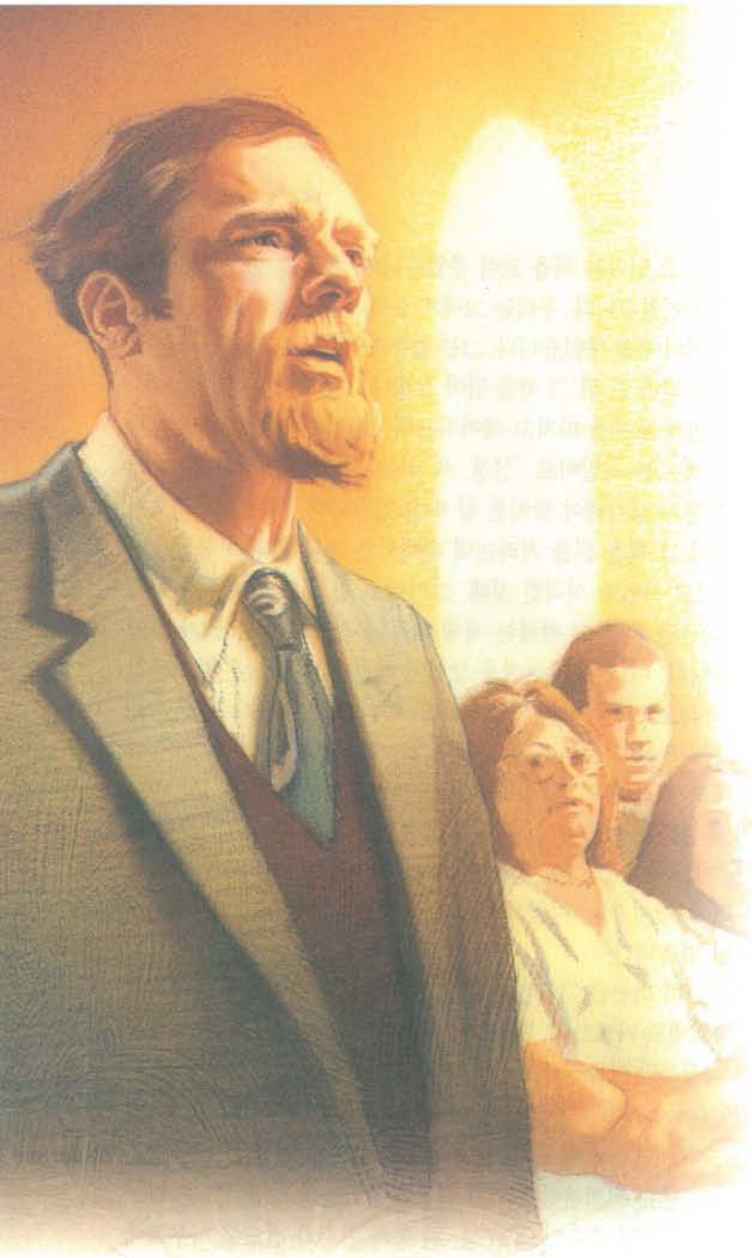
첫번째 토론을 마치고 헤어지는데, 도대체 헤르 클리카(여기에서 헤르는 독일어로 "선생, 씨"라는 의미이다.)라는 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책을 읽을 거라는데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들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첫째, 그야말로 한 명도 침례주지 못하고 낙담만 했던 그 첫째는 제게 너무나 깊은 흔적을 남겨 놓았었습니다. 이미 많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제 희망은 회의론적인 생각으로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대를 받고 헤르 클리카를 가르치러 갔을 때, 그는 물론경을 상당히 많이 읽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니파이이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한 지 10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말고는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7월 한달 내내 우리는 헤르 클리카를 가르쳤으며 8월에도 가르쳤습니 다. 그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갔지만 서둘러서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페퍼 장로와 저는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동양의 종교 서적처럼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8월 초순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선교부 사무실에서 왔습니 다. 제가 전근을 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페퍼 장로와 저에게는 훌륭한 구도자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구도자와 회원들에게 몰두하느라 주의를 다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루나부르크를 염려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근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페퍼 장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는 헤르 클리카가 10월 16일에 침례 받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그 곳에 참석해 주기를 헤르 클리카가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다른 구역으로 전근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교부장님은 제가 그 곳에 참석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페퍼 장로는 전화 통화에서 헤르 클리카가 대체로 서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발전했지만, 결국은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만 들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9월 21일에 선교사들이 그에게 침례



대형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간략하면서도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한 줄기 광선이 직접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증했다. 대형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간략하면서도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한 줄기 광선이 직접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나 엄숙했다. 그는 이 교회에서 충만한 느낌을 받았으며 곧 회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7주 전쯤에 진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했다. 모든 게 똑같은데 교회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리의 영 덕분에 그는 차이점을 보게 되었고 회원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큰 전율이 느껴져서 도저히 마음속에 이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오늘은 영원히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4일 후에 페퍼 장로는 키엘로 전근해서 침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10월 16일에 저는 동반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함부르크로 가서 스테이크 센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알프레드 클리카의 침례식을 증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힘든 선교 사업 과정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브루데르(“형제”라는 뜻의 독일어) 클리카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개종은 완전하면서도 변함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브루데르 클리카가 침례 받은 지 몇 년 후에 그 작은 루나베르크 지부는 해체되어서, 회원들은 함부르크 와드로 편입되었습니다. 브루데르 클리카는 항상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감독단 보좌와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훌륭한 말일성도와 결혼했으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부부가 성전 선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주님께 봉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1976년의 그 여름날 저녁을 회상해 보면서, 페퍼 장로와 제가 한번만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지지치 않아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대개는 한번 더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그 후에는 그때의 일이 제게 한 가지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일 몇 분만 더 일찍 그날의 선교 사업을 마쳤다면 우리로서, 교회로서, 또 무엇보다도 브루데르 클리카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이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

목표를 주었는데, 그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월 28일에는 무척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가지 간증을 얻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 며칠 후에는 아예 모든 것이 잘못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헤르 클리카가 선교사들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알려 왔다는 것입니다. 페퍼 장로와 하디 장로는 낙담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란 말인가? 어떻게 수습한단 말인가?

하지만 10월 3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퍼 장로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헤르 클리카가 교회에 왔다. …영이 너무도 강하게 임하여서 조그만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헤르 클리카는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왼쪽에서 두 번째 열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일어서서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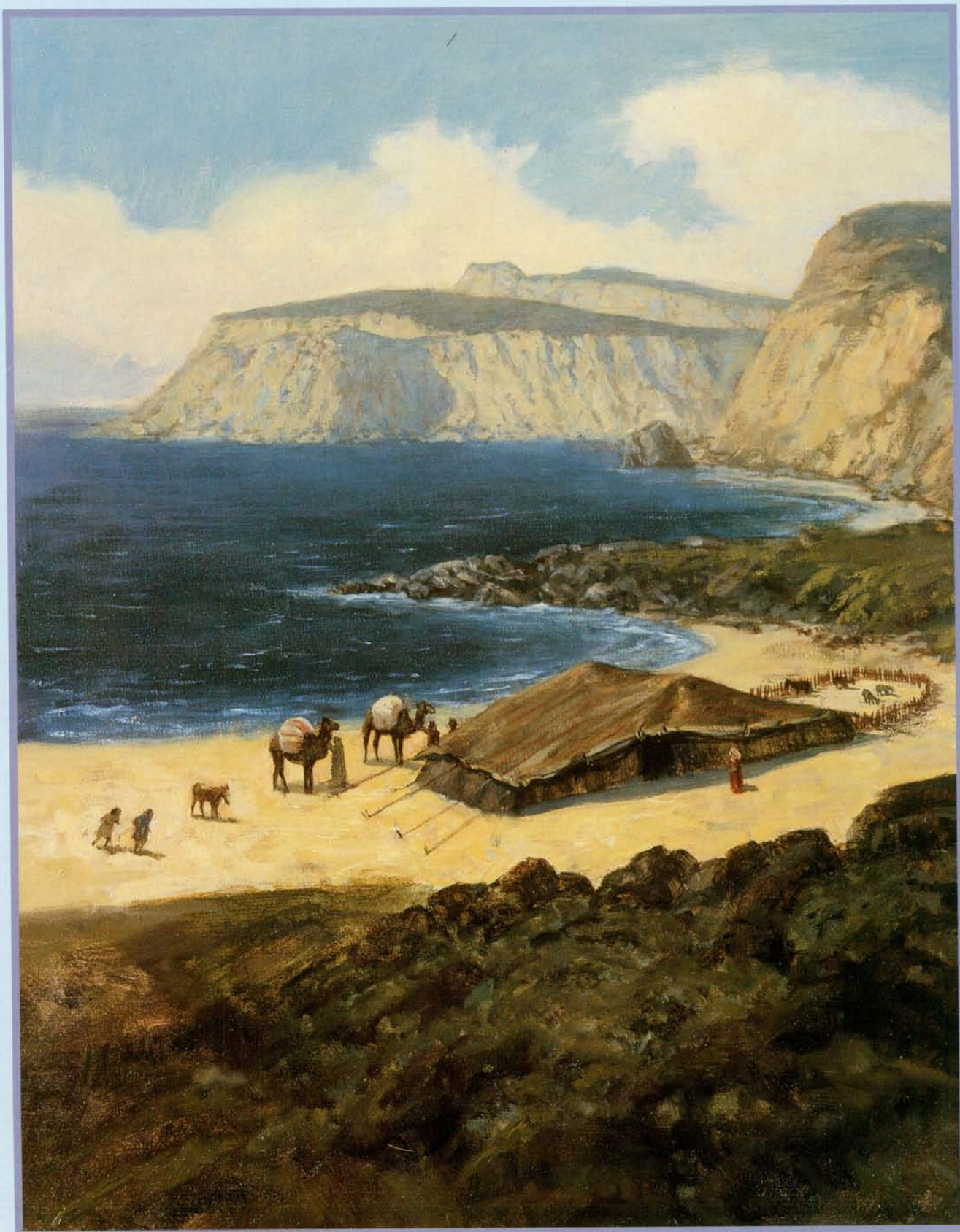


그림: 게리 엘 캡, 약속의 땅에서 천막을 친 리하이의 가족

“여러 날을 항해한 후에 우리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나니,  
육지로 올라가 천막을 치고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 이름하였고”(니파이일서 18:23)



주님께서는 리하이에게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몰몬경을 읽는 우리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배우고 기록한 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고 있다. 32쪽,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족의 간증” 참조.

